



▲ 효창공원에 있는 이봉창 선생상

오는 4월 13일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다. 이에 상하이의 인쇄사에서 잠시 근무했던 이봉창 의사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에 대해 알아본다.

이봉창 선생은 1932년 1월 8일 일본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전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준 인물이다. 이 선생이 터뜨린 한발의 수류탄은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해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부는 지난 62년 선생의 장거를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보성사터 기념비는 지금의 조계사 좌측 수송소공원에 있는데,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인쇄사로 보성학교 뒷마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19년 당시 최남선이 경영하던 신문관과 함께 최대 인쇄사로 꼽혔다. 보성사는 1919년 6월 28일 일본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일왕을 죽이려했던 이봉창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이봉창 의사의 생애

이진규의 아들로 한성부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다. 이봉창의 선대는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였으며 아버지 이진규는 농업을 계승하여 중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토지가 철도건설 계획지점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땅을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기고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어지자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거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산의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게 점원과 철도 운전 견습생 등으로 일하다가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기노시타 쇼조(일본어: 木下昌藏)라는 일본 이름을 얻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합류

1931년 1월 중순 상하이에 도착한 이봉창은 임시정부로 찾아간다. 임시정부 사람 중 일부는 그를 일본의 밀정으로 여겼으나 김구는 그의 말하는 태도의 비범함을 간파했다. 이후 이봉창이 여관을 정하고 숙박하자 김구는 은밀하게 방문하였다. 주위의 의심이 풀리지 않아 임시정부 사람들은 김구에게 그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봉창은 어느 날 김구에게 일왕을 처단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이봉창은 “나는 작년에 동경에 있을 때 일본 임금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이때 내게 무기만 있다면 큰일을 한번 해볼 텐데 하고 생각하던 중에 임금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버려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였다.

- 출생 1900년 8월 10일 대한제국 한성
- 1932년 10월 10일 일본 이치기야 형무소
- 사인 교수형
- 학력 보통학교 졸업
- 직업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 특이사항 1992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1931년 2월 김구는 이봉창에게 상하이 홍구 방면에서 종적을 감추고 일본인 행세를 하여 세간의 이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기노시타라는 가명으로 홍구에 거주하며 양수포의 일본인 인쇄공장에 취직하여 다녔고 몇 달 뒤에는 일본인 약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일본인들의 신임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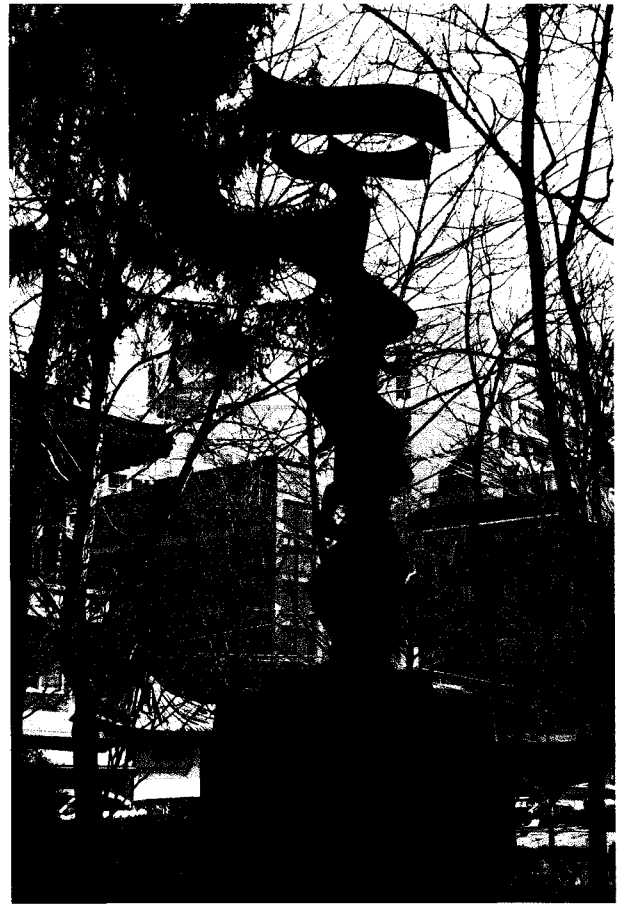
사쿠라다 문 의거

오랜 준비 끝에 1931년 12월 13일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괴수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는 선서를 하고 김구선생과 함께 수류탄을 양손에 든 채 기념 촬영을 했으며, 12월 17일 도쿄로 출발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도쿄 교외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인 히로히토를 겨냥하여 사쿠라다 문에서 수류탄 2개를 던졌다. 근위병 1명이 다쳤으나 히로히토는 다치지 않아 거사는 실패했다. 1932년 9월 30일 일본 재판부는 이봉창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보성사는 수송동(옛이름 전동) 44번지 보성학교 구내에 있었으며,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인쇄사로 30평에 2층 기와벽돌집이었다. 보성학교 뒷마당에 자리 잡았던 보성사는 천도교 3세 교조인 손병희 선생이 1910년 딸 보성학원을 인수하면서 운영권이 천도교로 넘어갔으며, 천도교가 운영하던 창신사와 합병돼 당시 최남선이 경영하던 신문관과 함께 당시 최대 인쇄사로 꼽혔다.

보성사는 3·1운동이 있던 해인 1919년 6월 28일 일본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그들은 소방대를 동원해 불을 끄는 척했으나 급수사정이 나쁘다는 구실로 인근 가옥에만 물을 뿌리고 보성사의 전소를 방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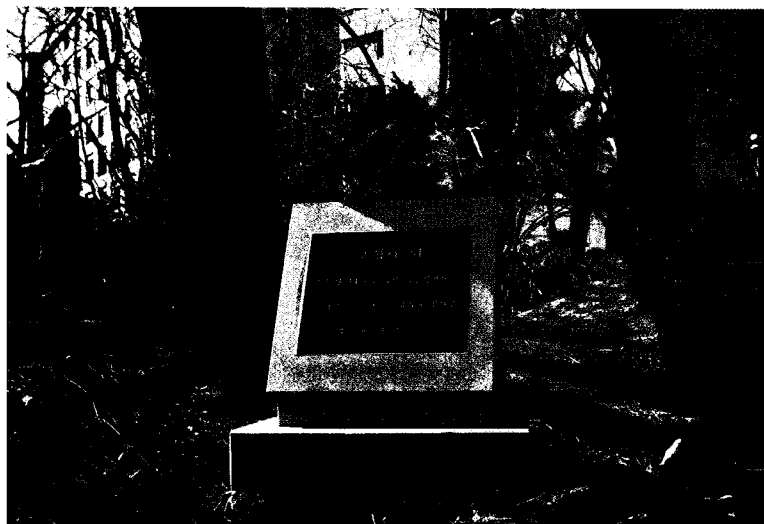
보성사 기념조형물의 상단부 청동 구조물은 3인의 군상이 기미독립선언서 또는 태극기를 든 모습으로 민족의 기상과 단결을 의미하고 있다. 하단부의 석재 조형물에는 보성사의 옛 모습과 3·1운동 장면을 양각으로 제작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음각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얽힌 일화

3·1운동에 앞서 1919년 2월 27일 육당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가 신문관에서 조판된 뒤 보성사로 넘어오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극비리에 2만1천매를 인쇄하였다. 인쇄할 때와 이를 보성사 사장인 이종일 씨의 집으로 옮기는 도중 일본 경찰에 적발될 뻔 하였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모면함으로써 28일 각지로 보내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할 수 있었다.

한편 2만1천부의 독립선언서중 현재 실존이 확인된 것은 2부뿐이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것과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오세창 선생의 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입남속 차장 sang@print.or.kr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선문을 비밀리에 인쇄한 천도교가 운영한 보성사가 있던 자리. 조계사 좌측 수송소공원에 있다.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

저자_배경식 출판사_너머박스

기노시타 쇼조는 이봉창의 일본식 이름이다. 우리에게 이봉창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황국신민이 되기를 꿈꾸었던 식민지 청년의 모습도 담고 있다. '독립운동가'와 '모던보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는 이봉창의 삶에 모두 존재했다. 불우한 어린 시절, 한국과 일본에서 방황을 하던 이봉창이 상해로 넘어가게 된 계기, 그리고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게 된 사연을 밝힌다. 삶을 고민하는 인간의 역사로서 이봉창을 통해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